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복음의 은총으로 가득한 설날

“내 사랑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번 주간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약간은 들뜬 기분이 있었지만, 보혈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벧전 5:8).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곳에는 항상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출 32:4), 사사시대에도 우상 숭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삿 2:11~12).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우상 숭배였습니다(렘 5:9).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10).

그런데 설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민족 고유의 명절에 소위 덕덕과 예를 강조하며 조상신 섬기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아덴을 향해 품었던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행 17:16). 또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도 새겨야 할 것입니다(엢 5:5). 신자에게 설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날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십자가를 더욱 붙들고, 복음의 은총으로 가득한 설날이 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및 금요찬양집회는 설날 연휴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 3:5).

*설날 가정예배 모본, 본지 7면

2011년 2월

교회
일정

9일 (수) 경가회(수요2부예배 후)

25일 (금) 2011년 제1차 경가회(금요찬양집회)

27일 (일) 2011년 제1차 학습예배(새장안예배)

성령의 말씀(금요찬양집회)

우주적인 목표

구약은 ‘구원의 역사’다. 구약의 역사는 분명히 예수께로 이끄는 한 길을 나타낸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역사다. 이 특별한 역사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역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도록 준비되어진 다른 방법들은 온 세상에 있는 다른 역사 안에서 찾게 된다. 이러한 논리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사실상 구약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구약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그 많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만다(마 1:18). 예수님, 그분의 특성이 세워진 그 기초가 구약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성경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솔직하게 대해야만 한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역사도 보여 준다. 신약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과거를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해 주는 것처럼 구약 역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등장하기 전에,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악의 문제를 보여 준 사건들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보여 준다. 따라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사실상 인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다루시는 그 모든 내용은 열방들을 향하신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로 보아야 한다. 이미 있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뚜렷한 목적지다(창 12:3). 같은 내용이 여러 모양으로 구약을 통하여 여러 곳에 반영되고 있다. 가장 좋은 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이 누구이며 저들의 역할과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 주신 사건이다(출 19:5).

이스라엘은 우주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출 9:29). 이 사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때때로 암시된다. 예레미야는 광야시대의 이스라엘을 뒤돌아보면서 외친다(렘 2:3). 이스라엘은 말씀의 내용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지만 결코 모든 것의 종합체도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의 한계도 아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있을과 추후할 것이 많음을 알려주는 첫 열매다(렘 4:1~2; 창 18:18~19). 천하 만민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요구하시는, 연결해 주는 고리와 같다. 이스라엘은 이름 그대로 여호와와 길을 공행과 의의 길로 견도록 만들어진 선택된 공동체다. 그러므로 이들의 사명은 성취되어야만 된다. 예레미야는 이 조항을 고집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결부시키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기반을 만든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다. 열방을 향한 선지자다. 그 의 사역이 우주적인 범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여 삶이 바뀌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른 그 결과는 이스라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것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시편에서도 이러한 우주적인 내용을 발견한다(시 72:17~19). 그러므로 구약을 읽으며 또한 구약의 특이한 역사를 읽을 때에 이러한 관점들을 마음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의 특이한 역사는 우주적인 한 목표를 위한 특이한 수단인 것이다.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구약의 역사를 상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약이야말로 유대인의 성경과 그들의 역사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게 들려진 말씀을 상기해 보자(요 3:16; 히 1:1~3). 아멘.

WHAT IS GOD TELLING US?

⁽¹⁾The Mighty One, God, the LORD, has spoken, And summoned the earth from the rising of the sun to its setting. ⁽²⁾Out of Zion, the perfection of beauty, God has shone forth.

... ⁽¹⁴⁾“Offer to God a sacrifice of thanksgiving And pay your vows to the Most High;

⁽¹⁵⁾Call upon Me in the day of trouble; I shall rescue you, and you will honor Me.”

(Psalm 50:1-15)

Too often church pastors preach from the Bible on Sunday telling us God is saying this or that, when in fact God's message is absolutely different. Today's Bible passage is all about God talking, "The Mighty One, God, the Lord, has spoken, and summoned the earth from the rising of the sun to its setting"(Ps. 50:1). God's dominion extends over every corner of the globe. He controls the entire universe. God is telling us things He wants us to know for certain. God said to gather all His people, "Gather My godly ones to Me, those who have made a covenant with Me by sacrifice"(Ps. 50:5). If God said to gather all His people, then He really has something important to talk about. We need to pay attention and listen carefully to what God wants us to know. When we really listen to Him it fills our hearts with praise. Let's open our hearts right now to hear what God is telling us.

God is telling us that He is righteous, "And the heavens declare His righteousness, for God Himself is judge"(Ps. 50:6). A lot of people don't know that God is righteous. They see Him as God of love who forgives everything, but not as God who always does right. God wants us to know first thing that He is righteous, and that everything He does speaks of His righteousness. Some people question God when things go wrong, and think that perhaps He made a mistake or didn't do right in a particular situation. We can be sure that God always acts in righteousness. God is good all the time! His righteousness was demonstrated at the cross. Unable to pass over sinfulness, He sacrificed His only Son to pay its price. We are all sinners bound for hell, "There is none righteous, not even one"(Rom. 3:10), and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Rom. 3:23). God's love brought salvation. His justice was satisfied at the cross. The blood of Christ paid for all our sins. God's righteousness is the joy of heaven, "Hallelujah! Salvation and glory and power belong to our God; because His judgments are true and righteous"(Rev. 19:1-2). I hope we know this God. Too many Christians don't know this God; they only know the God of forgiveness, and miss out on many a blessing.

God is telling us about His resources, "I shall take no young bull out of your house nor male goats out of your folds. For every beast of the forest is Mine, the cattle on a thousand hills. I know every bird of the mountains, and everything that moves in the field is Mine. If I were hungry I would not tell you, for the world is Mine, and all it contains"(Ps. 50:9-12). Everything belongs to God. Don't think this is mine and that is God's. God told us everything is His. He wants us to know about His resources. Our Lord owns everything. How could Israel imagine that the most High God,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had need of their animal offerings when all the countless flocks of the wilderness belong to Him? All

creatures belong to Him. Paul reminded us, "And my God will supply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in Christ Jesus"(Phil. 4:19). Do you know about God's resources? If so, then why ever worry? God knows everything that you need. Please look to God with faith, "For this reason I say to you, do not be worried about your life, as to what you will eat or what you will drink; nor for your body, as to what you will put on. Is not life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ing?"(Mt. 6:25). "And who of you by being worried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And why are you worried about clothing? Observe how the lilies of the field grow; they do not toil nor do they spin, yet I say to you that not even Solomon in all his glory clothed himself like one of these. But if God so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is alive today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furnace, will He not much more clothe you? You of little faith! Do not worry then, saying, 'What will we eat?' or 'What will we drink?' or 'What will we wear for clothing?'"(Mt. 6:27-31). God has you covered in every respect. He wants you to know His resources. Will you now worry about how God is going to meet your needs?

God is telling us about His response to our prayers, "Call upon Me in the day of trouble; I shall rescue you, and you will honor Me"(Ps. 50:15). God wants us to know that He responds to our praying. It's His promise, His righteousness, and His love that comes to us in prayer. Jesus' disciples experienced this first hand, "And there arose a fierce gale of wind, and the waves were breaking over the boat so much that the boat was already filling up. Jesus Himself was in the stern, asleep on the cushion; and they woke Him and said to Him, 'Teacher, do You not care that we are perishing?' And He got up and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sea, 'Hush, be still.' And the wind died down and it became perfectly calm"(Mk. 4:37-39). Do you believe it? God offers us great things,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I will tell you great and mighty things, which you do not know"(Jer. 33:3). Did you know that? Don't worry about anything. Just call to the Lord and He will more than take care of you. The thief on the cross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 Your kingdom!"(Lk. 23:42). Jesus said to the thief,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Lk. 23:43). Do you really believe God when He tells you that when you call on Him He will answer? Do you really know that in your day of trouble He will deliver you and you shall glorify Him?

My dear friends, don't wonder whether God will do right. Don't doubt that God will meet your pressing needs. Please call out to God and find Him sufficient for everything you need right now. Do you hear the wonderful things that God is telling us? If you truly hear, then give thanks to our Lord and praise His name. Amen.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대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1~15)



김성완 목사

아 주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주일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 설교하지만 이는 실제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성경본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대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시 50:1). 하나님의 통치는 지구의 모든 곳에 미칩니다. 그분은 전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알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시 50:5).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은 찬양으로 채워집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읍시다.

그의 공의로우심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공의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라”(시 50:6).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볼 뿐 공의를 행하시는 분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한다든 것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실수하셨거나 또는 특별한 상황에서 잘못하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분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라는 말씀대로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니라”(레 19:1~2).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나하면 그들은 단지 용서의 하나님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총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근본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 소나 네 우리에서 솟음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뚝 산의 가축이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세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시 50:9~12).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유물에 대하여 우리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무수한 광야의 동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만물

의 주인이신 가장 높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동물제물을 필요로 했는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매번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마 6:25).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마 6:27~33).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소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어떻게 채워 주실까 걱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5).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당신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약속, 공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 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니 예수께서는 고를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막 4:37~39).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십시오”(눅 23:42)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고 응답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에 주실 거라는 음성을 듣는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고통의 날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이분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지 아닌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필요를 채워 주실 거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듣고 있습니까? 진실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ㄸ

메시아의 죽음 64

일어나 (누가복음 22:45~46)

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일어나'라는 문구가 누가복음에는 34회에 걸쳐 기록되었다. 사건의 강조를 위해서 사용된 '일어나'라는 표현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순간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된 것이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눅 22:45~46).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3번 반복해서 제자들을 깨우고 다시 기도하셨다고 기술하였다. 이에 반해 누가는 이것을 생각하고 단 한 번만을 기록했으며 제자들을 꾸짖는 방식이 아닌, '일어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을 독려했었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겟세마네에 도착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눅 22:40)고 권고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근심과 피곤에 치쳐 잠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 다른 복음서 기자와 달리 누가는 예수님의 꾸짖음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가는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맡길 것을 기술하였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눅 22:28~29). 또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하였다. "이르

'일어나'는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주 사용한 독특한 표현 중 하나다. 마가복음은 6회, 마태복음 2회, 요한복음

시도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겹 겹 있는 자는 겹 옷을 껴 살지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겹 겹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눅 22:36~38). 이 말씀은 당시 상황 속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대화였으며, 구약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예언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눅 9:32).

어둠의 세력이 오고 있음을 예수님은 간파하셨다(눅 22:53). 그래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의 기도(눅 22:32)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으며 자신도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셨다.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지 않을 때 사탄이 일어나 우리를 지배하며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게 할 것이다. 사탄의 시험에 빠진 유다는 많은 사람을 이끌 정도로 물질과 명예를 얻는 것처럼 보였으나(눅 22:3,47).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어땠는가? 3년 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유다가 사탄의 시험에 쉽게 빠진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 영적으로 잠든다면 반드시 유혹에 빠진다. 그 유혹이 항상 세상에서의 영광과 명예로 오기 때문이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의 승리를 위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0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국일꾼 현장보고서

사랑부

충현복지관 강당(지하 1층), 오전 11:00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사랑부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외적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생생한 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약해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강하게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깊이 알 수 있고, 복음을 전하여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부 교사로 섬길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 모든 선생님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중보로 기도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헌신하는 사랑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중보로 기도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헌신하는 사랑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바다부

제2교육관 1층, 오전 9:00(학생) · 오후 12:40(성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수화학을 사용하여 하나씩 예바다부는 예바다부의 장점은 수화통역 봉사를 하시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성도와 농

아 성도도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바다부는 수화통역 봉사를 위해 상반기, 하반기에 수화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농아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여 부흥하며, 농아인들이 성경하기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성경쓰기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21개국으로 27개의 단기선교팀을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농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예바다부의 농아인들을 통해 많은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부족한 나는 증인의 사랑을 감당코자 선교지로 달려갔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은 선교의 현장이 되었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만나게 되었다. 몽골의 초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능할 수 없는 것처럼 끝없이 이어졌다. 천막집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순전하고 친절하게 우리를 맞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몽골의 초원은 척박하고 황무지 같은 곳이었지만 아주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런 평화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평화와 초원은 아무런 의미없는 슬픈 땅일 것이다. 진정한 의미가 있는 복음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만났던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강종과 흠진리 속에서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는 개들의 위협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도 성령 충만을 받아 담대함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었다. '낮에는 복음전파, 밤에는 영적무장' 선교구호를 외치며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었다.

지선화(집사, 6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31일(월) ~ 2월 8일(화)	대학부 1팀	남홍승
1월 31일(월) ~ 2월 8일(화)	대학부 2팀	정인선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25일(화) ~ 2월 1일(화)	고등부 1팀	김영환
1월 25일(화) ~ 2월 1일(화)	고등부 2팀	김봉화
1월 28일(금) ~ 2월 5일(목)	중등부 1팀	현준봉
1월 28일(금) ~ 2월 5일(목)	서양·영남1부 연팀	백민호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19일(수) ~ 1월 28일(금)	2교구 1팀	홍순길
1월 21일(금) ~ 1월 29일(목)	16교구 1팀	문연식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로 많은 부담을 안고 선교지로 출발하였던 죄인을 성령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 시시때때로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어서 복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배려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안정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령님께서 더욱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심을 실감하면서 팀의 단합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비록 부족한 언어였지만 초콜초롱한 눈빛으로 "아멘"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후로는 더욱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좁은 길을 걷기로 마음에 다짐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최정남(집사, 11교구)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을 향한 편지

잘 지내고 있나요?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건강은 어떠한지, 혹여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대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지내고 있는지 모든 것이 궁금해지네요.

어느덧 제가 중국 땅을 품고 기도한 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3개월 전, 허락받았던 그대들과의 만남의 축복 속에 있었던 모든 일을 떠올리고 추억하는 이 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저 공간 같았던 그때의 기쁨과 설렘이 아직 제 마음에 남아 있음에 편지를 쓰는 이 순간도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흐르네요.

유난히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즐비했고 바쁜 삶 속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모습들과 조금은 불편할 법도 했던 생활 환경 등. 사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복음을 전하고 듣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감사하게도 주님의 눈으로 그대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주셨고, 그대들 역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하나 됨에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셨습니다. 그대들의 이소와 눈물이 너무 귀하고 저 또한 그

런 그대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참 감사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그대들에게 전할 많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살아 계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때 그 작은 입술로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자신의 진배 고백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그대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유일한 진실이에요.

이제 정말 그대들을 위해 그저 전심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네요. 약속하겄요. 제 첫 전도여행에서 만났던 당신들을 제 삶 속 기도제목으로 늘 기억하며 동역할 것ですよ.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 되어서 우리 꼭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받아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음에 만남의 축복 속에 마주했던 그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이 사랑하고 축복해요.

2011. 1. 19

그대의 두 번째 기도 동역자 장경미(청년부)



겨울수련회

중등부 겨울수련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중등부 겨울수련회가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 대해 배우려고 중등부 학생들은 기쁜 발걸음으로 기도원으로 향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드러진 부흥회와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었다. 성경이 오직 예수님에 대해 집중하여 증거하고 있음을 통해 성경이 중요한 책임을 배울 수 있었고, 성경 퀴즈와 테마가 있는 카페 시간을 통해 몸으로 귀로 입으로 성경에 더욱 다가갈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 문제 보고서'라는 시간을 통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잘못된 문화들과 탈선에 대한 율혹 등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은혜로웠다.

'정말 잘 왔어!'

처음 기도원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기쁜 마음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기도원에 도착하고 기도원 침실에 들어 있는 십자가를 보니 예수님 생각이 나며 '정말 잘 왔어!'라는 기쁨이 몰려왔다. 교회는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보통 주일에만 그 평안함을 크게 느끼곤 하였는데 이렇게 평일에도 예수님의 날개 아래 있음을 누리니 행복했다.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아 기뻐했다.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성경퀴즈시간이 있었다.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나와 자신있게 문제를 풀려고 앞으로 나갔다. 하지만 마침 어려운 문제가 나와 크게 당황했다. 예수님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수련회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과 사귄 수 있어서 즐거웠다. 친구들은 각각 다른 색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게 되니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었다.

부흥회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예수님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사탄과 세상과 계약을 맺는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을 일깨워 주셨다. 그리고 보니 우리가 공부시간과 예배시간에 잠자고 핸드폰 하고 때를고 성경 읽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사탄이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의 영혼을 행방하는 것 같았다. 나도 방해를 많이 받았는데 특히 수련회에 같이 오려고 계속해서 권면하였던 우진이가 결국 오지 못하게 된 일이 생각났다. '우진이는 얼마나 세상과 깊이 계약을 맺었을까?' 생각하니 우진이가 꼭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에 우리는 다같이 모여 친구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 친구들의 이름을 외우지 못해서 파란돌이, 보라돌이, 줄무늬돌이로 불렀다. 그 친구들의 이름을 알아가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새벽기도 시간에는 웬지 더 영적으로 어떤 아이처럼 순수해지는 것 같았다. '시대의 출애굽'이란 프로그램 시간에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집중하지 못했다. 목사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너희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라고 하셨다. 우리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이 있는 친구가 두 명밖에 없었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부모님께 떠밀려 수련회에 온 것 밖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결국 고등학생이 되면 학업 등의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는데 내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쏟아내고 싶어졌다.

정말 예수님께 죄송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다. 아까 들은 사탄의 방해가 더욱 심해질 것이기에 더욱 기도하고 싶어졌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 이번 수련회가 나에게 주는 정말 깊은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 수련회가 벌써 기다려졌다. 정말로 감사한 수련회였다.

위희원(중등부)



여는 마당 (대학부 신입생을 위한 영상훈련)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지난 1월 12-13일은 대학부에서 우리 92동기들을 환영하는 여는 마당이 있는 날이었다. 나는 과연 내가 대학부에 올라가서 적응을 잘 할지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여는 마당에 잘지 말지도 고민되었다. 다른 선배들은 그냥 가서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했다. 화요일 저녁에 짐을 챙기고 수요일 아침에 별 기대 없이 교회로 향했다. 여는 마당은 고등부 수련회와는 달리 핸드폰을 모두 걷어서 집에 갈 때 준다고 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예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처음에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난 고등부 수련회의 특강 시간이나 공동체 훈련 때에 핸드폰을 하던 우리의 모습이 생각났다.

기도원에 도착해서 개회 예배를 드리고 대학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 91동기 선배들이 우리 92동기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도 있었다. 재미있었다. 더 많은 대학부 선배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팀끼리 더 친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저녁 부흥회 시간,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셨을 때 나는 공동체 훈련으로 몸이 많이 피곤해서 깨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 (마 11:2~6). 정말 너무 은혜로웠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나?' 하는 내 마음을, 또한 젊음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간구하였다는 것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주여, 오늘 내가 주를 만나게 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살아 계신 주를 찾게 해 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답답했던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 13일, 여는 마당을 무사히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다. 그래도 가질 잘 했다고. 단순히 놀면서 시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소연(대학부)

방주로 들어가라

(창세기 7:1)

노아가 살던 시대는 매우 악했다(창 6:5,7). 모든 사람들은 부패하였고 그 포악함은 극에 달했다(창 6:11~12).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을 선언하셨다(창 6:13). 모든 사람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런데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주님의 단 한 번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노아와 함께 살았던 당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이상스러운 행동을 비웃었다.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육신의 고통보다 주위 사람들의 조롱과 냉대가 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노아는 불평과 비난을 내뱉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으며 순종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한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는 완성되었고 이제 주님은 그 구원의 방주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다. "방주로 들어가라!"

홍수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야만 할 수 있었다. 주님의 경고(창 7:4)는 그대로 실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뿐이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도 방주로 초청되었다(창 6:19).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방주 안에서의 삶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순탄한 것은 없었으며 모든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주를 피하려고 한다. 방주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롬 6:23).

초창에는 믿음으로 옹호해야 한다

설날 가정예배

- ◆ 찬 송 324장 다 합 계
- ◆ 신일가곡 사도신경 다 합 계
- ◆ 찬 송 531장 다 합 계
- ◆ 말씀본독 창세기 7:1 다 합 계
- ◆ 말씀선포 방주로 들어가라 설 교 자
- ◆ 통성기도 다 합 계
- ◆ 주기도문 다 합 계

방주로의 초청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창 7:1). 노아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히 11:7).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할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엡 2:8~9). 홍수 전에 방주로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는 심판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요 3:36).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향해 나아가자.

초창은 노아의 온 가족이었다

노아의 믿음으로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 정확히 말해서 주님은 노아를 포함한 온 가족을 초청하셨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 간수의 집권(행 16:30)에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고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주님은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모든 가정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만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며 어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시 119:90). 부모는 권위를 버리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자.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자. 내가 보혈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가족은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란 어렵다. 세상을 생각할 때 방주로 들어가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홍수에서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방주뿐이다. 방주로의 초청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며 이 초청은 우리 가족을 향해 있다. 무엇 때문에 주저하는가? 문제는 믿음이 없는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자.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바로 그 자비하신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부르고 계신다. "지금 오라, 지금 곧 나아오라!"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십자가의 길

영적 긴장감이 필요한 설날

우리 나라의 설날의 풍속은 신라 시대 이전부터 형성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설을 정월 대보름, 삼짇날, 팔공회, 한식, 단오, 추석, 중구, 동지와 함께 9대 명절로 삼고 지냈는데 그것이 조선 시대에 와서 설날, 한식, 단오, 추석만을 4대 명절로 삼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다른 명절들은 유명무실해지고 오직 설날과 추석, 이 두 명절만 크게 지내고 있다. 설날을 다른 말로 '신일(新日)'이라 하여, 이날에는 바깥에 나가는 것을 삼가고 주로 집 안에서 지내며 한 해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해 주기를 신에게 빌었다. 그래서 설날 아침 일찍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조상신에게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것이 빠진 설날은 아무 의미가 없기에 궁핍한 가정일지라도 이 날만큼은 제사를 정성껏 준비해서 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설날의 초점은 철저하게 조상신을 섬기는 데 있다. 따라서 설날을 맞이하는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므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시라" (요한 1:9-12).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587	이선영	양육반	17 친희래
1588	전희연	양육반	1 신동욱
1589	황지혜자	양육반	21
1590	김혜은	청년2부	14 일남빈
1591	박소윤	양육반	1 김근아
1592	신윤환	양육반	2
1593	김희은	중등부	12 류홍희
1594	김현동	양육반	14 홍미화
1595	김정후	양육반	21 홍미화
1596	안서희	양육반	3
1597	송기섭	양육반	2 김홍선
1598	전은미	청년1부	21 이평화
1599	황명진	양육반	7 장전석
1600	박예진	예바다부	1
1601	한지수	청년1부	11
1602	정선우	청년1부	1
1603	백승배	양육반	2 김홍선
1604	허주희	양육반	4 최현희

충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